

충북문화재단 내년 6월 출범

(청주=연합뉴스) 박재천 기자 = 충북의 문화예술 진흥 분야를 전담할 문화재단이 내년 6월 만들어진다.

8일 도에 따르면 문화예술 역량 증진, 도민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북 문화재단을 내년 6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.

도는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재단 설립 조례 제정, 이사회와 사무처 구성, 창립총회 개최 등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.

특히 개방형 기구인 이사회는 지사, 도 문화관광환경국장, 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등 당연직 이사와 함께 문화예술계, 학계,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구성된다.

140여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자산으로 출범하는 문화재단은 2012년까지 매년 3억원의 운영비(도비)를 지원받지만, 그 이후에는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립해야 한다.

도의 문화선진도 구현 프로그램의 핵심인 문화재단은 문예진흥기금 지원,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, 충북문화사랑티켓 운영,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,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, 민간 협력을 통한 공연·전시회 유치, 문화예술사업 평가 및 컨설팅 등 사업을 펴게 된다.

도 관계자는 "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충북의 문화복지 수준도 한 단계 상승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jcpark@yna.co.kr

(끝)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.>

[2009-04-08 09:52 송고]